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317-360
<https://doi.org/10.29212/mh.2017..105.3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 ‘船所’ 연구*

송은일**

1. 머리말
2.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
3.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위치와 입지 조건
4.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수군진 선소 및 읍 선소의 운영과 시설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전국에 양항의 군사요해지에는 많은 船所¹⁾들이 존재했다. 선소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군선의 건조·수리,²⁾ 정박처³⁾ 그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957).

**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실장

1) 선소는 시기에 따라 船倉(倉, 滄, 廠), 待變亭, 御變亭, 戰船所 등으로 별칭되었다.

2) 『태종실록』권25, 태종 13년 3월 계묘; 『세조실록』권27, 세조 8년 2월 기미; 『인조실록』권31, 인조 13년 1월 기미.

3) 『태조실록』권3, 태조 2년 4월 신유; 『승정원일기』인조 23년 5월 22일 계묘.

리고 수군 보급품의 보관·지급하는 공간이었다.⁴⁾ 아울러 조운선·상선의 정박·점검·수리도 함께 이루어졌다.⁵⁾ 또한 바닷길의 무사함을 비는 祭儀의 공간이자⁶⁾ 浦口로서 상업 활동이 활발했다.⁷⁾ 이러한 선소는 조선시대 수군력, 수군활동, 수군사, 해양문화 등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군선을 중심으로 개별 선박에 대한 연구,⁸⁾ 조선업과 조선술에 대한 연구⁹⁾ 등은 있지만, 정작 그러한 것들을 태동시켰던 선소연구는 매우 미흡하다.¹⁰⁾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全羅左道水軍節度使營(이하 전라좌수영이라고 함) 관할지역 모든 선소를 정리하여 시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모든 선소가 설치된 연월·시기를 정리한다. 선소들이 들어서기에 이른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고, 선소의 설치 연월·시기와 수군진 설치, 수군 방어체제의 변화와 관련성을 밝힌다.

4) 조선 후기 읍지류의 연해 군현조나 고지도의 선소 등에 선소창이나 선창이라고 나타난 것 등은 모두 선소와 관련된 창고로 생각된다. 이곳에는 선소를 별칭으로 선창이라고 표기해 놓은 경우도 있다.

5) 『성종실록』권62, 성종 6년 12월 병자;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 윤5월 정미.

6) 『태종실록』권36, 태종 18년 8월 갑신; 『일성록』 정조 18년 10월 12일 병신.

7) 金鉉丘, 「조선 후기 造船業과 造船術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81, 1998, 239쪽.

8) 金在瑾, 『朝鮮王朝軍船研究』, 韓國文化研究所, 1976; 『韓國船舶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우리 배의 歷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韓國의 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續韓國船舶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9) 姜萬吉, 「李朝造船史」, 『韓國文化史大系』 III,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8; 『朝鮮時代 商工業史研究』, 한길사, 1981; 金鉉丘, 앞의 논문.

10)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수많은 선소가 존재했지만 이들 중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순천도호부선소(현 여수선소) 1개소에 불과하다.(변동명, 「조선시기의 여천선소 유적」, 『海洋文化研究』 창간호, 2008) 이 연구는 선소에 대한 사례연구의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개별 사례연구라는 점 때문에 조선시대 水營단위 또는 지방단위의 선소를 조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선소의 입지조건과 같은 중요한 부분을 다루지 않는 점도 한계이다. 본 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 전반을 다룬다.

둘째, 각 선소의 위치와 입지조건 등을 현장답사와 조사 그리고 문헌과 고지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알아본다. 셋째,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운영에 대해 조직,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는 물론이고 조선시대 전국에 산재했던 선소를 이해하고, 후속연구에 선행연구로 기능하길 기대한다. 이 글을 전개하기 전 미리 언급해두고자 하는 것은 전라좌수영이라는 광범위한 지역 선소의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다보니 정치·사회·군사적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향후 연구에서 진행될 것이다.

2.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는 관할 수군진과 고을에 설치되었다. 본 글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을 연구범위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 관할 범위부터 알아보고 관할지역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 등을 정리한다.

전라좌수영은 1479년(성종 10)에 설치되고, 예하에 蛇渡僉節制使鎮, 會寧浦(현 장흥군)·達梁(현 해남군)·呂島(현 고흥군)·馬島(현 강진군)·鉢浦(현 고흥군)·突山浦(현 여수시)萬戶鎮 등을 두었다.¹¹⁾ 당시 수군방어체제는 진관체제였기 때문에 전라좌수영 소속 각 수군진만으로 진관조직에 편제되었다. 전라좌수영은 1522년(중종 17)에 변화되었다. 全羅右道水軍節度使營(이하 전라우수영이라고 함) 가리포첨절제사진이 설치되고, 좌수영 소속이었던 마도·달랑만호진이 전라우수영으로 이속되고, 돌산만호진은 혁파되고 순천부의 지상군에 편제되는 한편 防踏僉節制使鎮이 설치되었다. 결국 전라좌수영은 예하에 사도·방답첨절제사진 등 巨鎮 2개, 회령

11) 『經國大典』兵典.

포·여도·녹도·발포 등 만호진 4개를 두었다.

16세기 중엽, 진관체제가 제승방략 체제로 바뀌면서¹²⁾ 전라좌수영은 관할 수군진뿐만 아니라 연해지역 각 읍에 수군기지를 설치하여 수군 훈련과 군선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수군진 이외에 순천부·보성군·낙안군·광양현·홍양현(현 고흥군)·장흥부까지 관할지역이 확대되었다. 일례로 1587년(선조 20) 전라좌수사 李薦이 관할지역의 왜구수색을 위해 휘하 수군진은 물론이고 순천·낙안·보성·홍양 등 연해 읍까지 소집명령을 내렸던 것은¹³⁾ 그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전라좌수영은 임진왜란 직전에 관할 회령포만호진과 장흥부가 전라 우수영 관할로 이관되었다가 임진왜란후 다시 복귀되었고, 1611년(광해진 3년)에 순천부의 지상군에 편제되었던 돌산만호진이 다시 權管이 지휘하는 수군진으로 복구되어 古突山權管鎭이 되었다. 이후 일부 수군진이 우수영 관할로 이관되었다가 복귀되는 변화는 있었지만, 대체로 광해군대 편제가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휘하 수군진과 관할 고을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 邑·鎭

번호	營·鎭·邑	현 위치	선소 유·무
1	전라좌수영 본영	여수시 군자동	유
2	사도첨절제사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유
3	방담첨절제사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유
4	회령포만호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유
5	녹도만호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유

12) 許善道, 「制勝方略 研究(下)」, 『震檀學報』37, 1974. 16쪽. 제승방략체제 성립은 을묘왜변에 기인한다.

13) 『선조실록』권21, 선조 20년 6월 기미. 전라좌수사 李薦은 소집명령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순천부사 성응길과 보성·낙안·홍양·광양 등의 수령들에게 매를 때렸는데, 보성군수가 사망했다. 이는 보성 등지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이었음을 입증한다.

번호	營·鎭·邑	현 위치	선소 유·무
6	발포만호진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	유
7	여도만호진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유
8	고돌산권관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유
9	순천도호부	여수시·순천시 일원	유
10	장흥도호부	장흥군 일원	유
11	보성군	보성군 일원	유
12	낙안군	순천시 낙안면 일원 보성군 벌교읍 일원	유
13	광양현	광양시 일원	유
14	흥양현	고흥군 일원	유

위 표와 같이 수군진에는 기본적으로 선소가 설치되었고, 읍 단위에는 읍수군이 설치되어 전선을 건조·정박하는 등의 장소로 선소가 들어서게 되었다. 제송방략이 시행되었던 1555년 경에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의 선소는 대략 14개소 정도로 이는 『고지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를 알아본다.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는 수군의 정박처, 수군진의 설치, 수군방어체제 변화와 관계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보는 가운데 각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 등을 밝혀본다.¹⁴⁾

①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의 연원 및 설치시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본영 선소는 전라좌수영이 설치된 1479년(성종 10) 경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라좌수영은 현 여수에 존재했었던 內禮浦萬戶鎭에서 연

14)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의 설치시기는 대부분 수군진의 설치시기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군진의 설치시기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것을 가늠하고자 한다. 다만 일부 예외의 경우가 있을 경우는 수군진 설치시기와 함께 부설 선소 설치시기도 함께 밝혀볼 것이다.

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례포만호진은 1423년(세종 5)에 전라감사가 進禮梁의 군선을 현 여수시 군자동 일대의 내례포로 옮겨 정박시킬 것을 건의하여 현 여수시 상암동 일원에 존치했던 진례만호진의 군선을 옮기면서 설치되었다.¹⁵⁾ 이 내례포만호진은 1478년(성종 9) 왜구침입이 많은 남해안 지역에 主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순찰사李克培의 건의로 다음 해에 水軍節度使鎭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전라좌수영이다.¹⁶⁾ 이후 전라좌수영은 전라우수영에서 수군과 營衛吏 등을 일부 이속받아 주진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이를 보면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는 전라좌수영이 설치되기 이전 진례만호진의 군선을 내례포로 옮겨진 1423년(세종 5) 경에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선소에는 특별한 정박시설물은 갖추어지지 않았고, 군선을 메어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석주 정도를 세워놓음으로써 정박처로서 선소의 기능을 유지하였다고 짐작된다.¹⁷⁾ 세종대에 각 포에 있던 군선이 관리되지 못해 훼손되었으며, 정상 군선이라도 바다에 띄워 놓아 정박시키지 않고 해안 언덕위에 높이 매달아 놓았다는 기록은 그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¹⁸⁾

② 사도첨절제사진(이하 사도진이라고 함)에 부설되었던 선소를 살펴본다. 사도진은 조선전기 軍翼道體制에서 전라좌도 수군을 관장하던 여도만호진의 군선 일부가 사도로 옮겨지면서 그 기반이 되었는데 그 시기는 1427년(세종 9) 경이었다. 지형상 여도보다는 외양에 있어 외적을 미리 방어할 수 있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고, 수심이 깊어서 군선

15)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1월 계묘. 내례포가 경상우수영 관하의 평산포만호진(남해)과 마주하여 봉화나 鼓角으로 연락하여 합동으로 외적방어 편리했기 때문이었다.

16) 『성종실록』 권100, 성종 10년 정월 계해.

17) 전라좌수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湖左水營誌』(奎, 古 9920-3, 1847년)의 기록에 의하면 군선의 계류처인 船滄을 만들기 전에 전선을 메어놓기 위하여 5개의 석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 4월 신축.

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등 군사요해처였기 때문에 군사지휘관이 계청하여 설치되었다.¹⁹⁾ 그러나 당시 사도는 군선과 수군만이 있었을 뿐, 수군진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이 때 사도에는 군선을 정박하고 건조·수리하는 선소를 정해 놓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리했었던 사도에 수군진이 설치된 것은 1466년(세조 12)이었다.²⁰⁾

③ 방답첨절제사진(이하 방답진이라고 함) 선소의 설치시기를 살펴본다. 이 수군진이 설치되게 이른 배경에는 왜구침입의 해로 요충지라는 점에서 돌산도가 우선 부각되었다.²¹⁾ 1488년(성종 19) 돌산도에 국둔전이 설치되어 한 해에 적어도 7~8백석, 많으면 1천석의 식량이 생산되어 돌산도의 방어가 중시되었다. 돌산도 국둔전의 식량은 순천·광양·낙안·홍양 등 주변지역의 환곡으로 운영될 정도였으며,²²⁾ 군사·경제적 목적에서 돌산도 방어는 중요하였다. 돌산도 방답에 수군진이 들어서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으며, 그 시기는 1522년(중종 17) 경이었다.²³⁾ 이렇게 방답에 수군진이 설치되었다면 이 시기 선소도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답진은 전라좌수영의 최전방으로 왜구의 주요통로이자 해로상의 군사요충지였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방답진의 위치로 판단해보면, 수군진 설치 이전에도 수군활동이 활발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사시 군선이 정박할 선소가 있었을 것이다.

19)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7월 갑오.

20) 송은일, 「조선전기 고흥지역 水軍鎭의 설치와 水軍의 동향」, 『歷史學研究』 65, 2016, 47~48쪽 주) 41.

21) 『성종실록』 권134, 성종 12년 10월 갑신; 권197, 17년 11월 계해; 권217, 19년 6월 갑오;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정월 계유;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7월 계유.

22) 『중종실록』 권44, 중종 20년 5월 임술; 권88, 33년 9월 경자; 邊東明, 「朝鮮時代 突山島 防踏鎭의 설치와 그 구조」, 『韓國史學報』 27, 2007, 18~19쪽.

23) 『신증동국여지승람』 40, 순천도호부 관방 방답진조. 방답진의 창설시기를 1523년(중종 18)이라고 되어 있지만 1522년(중종 17)에 방답진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변동명, 앞의 논문, 2007, 20~21쪽).

④ 회령포만호진(이하 회령포진이라고 함)은 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일대에 정착하기까지 전 몇 차례 移鎮하였다. 회령포진은 1422년(세종 4) 장흥의 회령포에,²⁴⁾ 1425년(세종 7) 이전에 召麻浦에, 1425년(세종 7)에 이 소마포가 조수가 물러가면 군선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周浦로, 1432년(세종 14) 이후 揮羅浦에, 뒤이어 扇子島로 이동하였다.²⁵⁾ 회령포진의 이동에 따라 선소도 이동하였을 것이다. 외적 방어를 위한 전진 배치라는 점과 육지에서 흘러온 토사의 축적, 조수간만의 큰 차이로 인한 선소기능 저하 등으로 회령포진은 여러 차례 이동했다.

⑤ 1406년(태종)에 처음 기록에 등장한 녹도만호진(이하 녹도진이라고 함)은 조선초기 수군증강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건국직후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수군을 보호 육성할 뜻을 밝히고 전함을 수리하고 건조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 司水色이라는 관직을 두었다. 이후 태조대 잦은 왜구침입에 대응하여 전라·경상·양광 3도에 각각 절제사를 파견하고 경기좌·우도의 수군도절제사를 임명하여 군선을 거느리고 왜구들을 토벌케 하였다. 1397년(태조 6) 각도의 연해 거점 15개 처에 鎭을 설치하여 각도병마도절제사를 폐지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어 인근지역의 병마를 통솔케 하는 병제개혁을 단행하였다. 1398년(태조 7)에는 만호·천호·백호 등 수군직의 품계를 정비하였다.²⁶⁾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수군관련 군제변화에서 녹도진은 늦어도 수군진의 품계가 정해졌었던 1398년에는 이미 설진되었을 것이다.

⑥ 발포만호진(이하 발포진이라고 함)은 1439년(세종 21) 설치되었는데, 이는 所訖浦(소흘포만호진)가 방수에 어려움이 있자 1439년에 발포

24) 이 때 수군진의 명호가 회령포로 붙여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곳은 현재 보성군 회진면 일원이었다고 회자되고 있다.

25) 『세종실록』권18, 세종 4년 11월 을해; 권27, 7년 2월 을축; 『장흥도호부지도』(奎10443), 全羅左道長興府會寧浦鎭誌古蹟.

26) 『태조실록』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 권3, 2년 3월 갑자; 권11, 6년 5월 임신; 권14, 7년 윤5월 16일신묘.

로 이박시켰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군선부터 발포로 이박시켜 놓고 이후에 지휘관인 만호를 배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발포진에 선소가 들어선 것은 1439년 이전에서 가까운 시기였다.²⁷⁾

⑦ 1425년(세종 7) 경에 설치되었던 여도만호진(이하 여도진이라고 함)은 전라좌도의 수군을 관장하던 도만호진이었다. 이곳에 도만호진이 설치된 것은 좌도의 중심이면서 내항 안쪽에 위치에 있어 외적으로부터 쉽게 관망되지 않는 이점을 가진 군사요해지로 도만호가 순환하면서 방어하기가 편리했기 때문이었다.²⁸⁾ 여도진은 이후 왜구에 대한 조선의 적극적인 방어정책과 수군지휘체계의 변화 등에 밀려 외항에 있었던 사도지역으로 그 지휘권을 내주고 만호진으로 강등되었다. 여도진의 선소는 여도진이 설치되었던 1425년으로 판단된다.

⑧ 고돌산권관진(이하 고돌산진이라고 함)은 돌산진으로부터 연원한다. 1418년(태종 18) 전 황해도 관찰사 金文發의 줄기에 처음 기록된 돌산진은 김문발이 수군만호로 활약했던 1394년(태조 3)과 연결시켜 1394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²⁹⁾ 돌산진은 이름으로 보면, 돌산도가 연상되지만, 진이 설치된 지역은 장생(성)포였다. 이곳이 돌산진으로 불려진 것은 돌산현 주민들이 고려말 왜구를 피해 현 여수시 안산동 일대로 옮겨오면서 옛 지명인 돌산을 그대로 불러 포구를 돌산포로, 수군진 명호를 돌산진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고려말 왜구를 피해 다른 군현으로 옮겨간 고을의 경우, 이전 고을 명호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³⁰⁾

27) 『세종실록』권83, 세종 20년 10월 을해; 권85, 세종 21년 4월 무자. 召訖浦에서 발포로 군선이 이동한 시기는 소흘포만호의 활동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시기와 발포가 만호진으로 인증된 시기를 통해 1438년 10월에서 1439년 4월로 짐작된다.

28) 『세종실록』권27, 세종 7년 2월 을축.

29) 『태조실록』권5, 태조 3년 3월 병진; 『태종실록』권35, 태종 18년 4월 갑신.

30) 邊東明, 『突山鎭과 古突山鎭』, 『歷史學報』198, 2008, 6~9쪽. 전라도 섬에 설치되었던 고을 중에 왜구를 피해 주현인 나주의 내륙으로 옮겨간 압해현, 장산현 그리고 영암군으로 옮겨간 진도현, 흑산도에서 나주로 옮겨간 영산현을 등이 예전의 명호를 그대로 따랐다.

원래 장생포지역은 고려말 수군지휘관 유탁이 왜구를 물리쳤던 군사 요충지였으며, 조선시대 소나무를 배양하는 의송지였기 때문에 조선 건국 후 수군진이 설치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선소의 연원은 柳濯의 사례와 연관시켜 고려말 또는 그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이 선소는 뒤에 장생포에 들어서는 순천부선소(현 여수선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돌산진 선소에 대한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전라도 감사가 병조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左道の 內禮와 突山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양포의 군선이 모여서 머무르기가 불편하고, 순천부 長省浦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突山萬戶의 군선 4척은 龍門浦에 이박시키고, 그 용문포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都萬戶의 군선은 좌도의 중앙인 呂島에 이박시켜, 도만호가 순환하면서 방어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³¹⁾

1425년(세종 7) 순천부 장성포에 머무르고 있던 돌산만호 군선을 龍文浦(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로 옮겨간 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돌산진이 용문포로 이거함에 따라 돌산진 선소도 그곳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 선소에 대한 설치시기를 정리했다. 추가로 전라좌수영 관할 읍에 존재했었던 선소의 설치시기 등을 정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라좌수영 관할 읍에 존재했었던 선소의 설치는 조선전기 군사방어체제의 변화에 따른 읍수군의 설치와 관계된다. 따라서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군사방어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전라좌수영 관할 읍의 선소 설치시기를 정리해 본다.

1457년(세조 3)이후 국방체제의 근간이 된 진관체제는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을 전후하여 제승방략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해양방어체제도 변화되었다. 진관체제 하에서 수군은 행정구역과 관련 없이 연해 요

31) 『세종실록』권27, 세종 7년 2월 을축.

해지에 설치된 수군진을 묶어 진관조직으로 편제하였다. 그러나 제승 방략체제에서 수군진만이 아닌 연해지역 즉 수군진이 존재했었던 읍은 물론이고 주진의 인근 읍까지도 수군이 창설되어 수군절도사(이하 수사라고 함) 관할 하에 두고 수군훈련과 군선관리 등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읍에 읍수군이 창설되었고 읍수군이 주둔할 수 있으면서도 군선을 건조하고 계류시킬 수 있는 장소로 선소가 들어섰다. 이 시기 전라좌수영 관할하로 편입된 순천도호부·장흥도호부·보성군·낙안군·홍양현·광양현 등지에 선소가 들어섰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삼가 진으로 돌아가는 일을 아웁니다. ... 본영에 소속된 수군은 다섯 고을로써 순천은 원래의 책임 수량과 더 만드는 수량을 아울러 전선 10척, 홍양이 10척, 보성이 8척, 광양이 4척 낙안의 3척 등은 벌써 다 만들었으나 허다한 사부와 격군들을 일시에 보충할 수 없어서 이들을 일제히 돌아오게 할 수 없으므로 순천 5척, 광양 2척, 홍양 5척, 보성 4척, 낙안 2척만을 먼저 검색하고 독려하여 거느리고 이달 1월 17일 거제 땅 한산도 진중으로 향하여 출발하며 정비되지 못한 전선들을 뒤따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오라고 전령하였거니와 ... 만력 22년 1월 10일.³²⁾

위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관할 읍에서 건조한 전선(판옥선) 일부에 객군과 사부를 갖추어 한산진으로 보내겠다는 내용 등이다. 당시 전라좌수영 관할 읍은 순천도호부·보성군·낙안군·홍양현·광양현 등이었다. 전라좌수영 관할 소속이었던 장흥도호부는 1522년(중종 17) 이후 임진왜란 이전까지 잠시 전라우수영에 배속되었기 때문에 위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하튼 당시 전라좌수영 관할 5개 읍은 전라좌수사의 명에 의해 전선 건조 척수 할당량을 배정받고 그 일을 착수하여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전선은 판옥

32)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3, 還陳狀.

선으로 조선 수군의 주력전함이었다. 그 길이만 해도 30~40m이다. 그러므로 이 전선을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건조하고 무장설비까지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이 일을 아무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1척도 아니고 적게는 4척에서 많게는 10척의 전선을 각 읍 단위로 건조한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전선을 건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전라좌수영 관할 읍에는 이미 전선을 건조할 수 있는 선소가 설치되었다고 해석된다. 이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이침에 공무를 마친 뒤 녹도로 가는데 황속도도 동행하였다. 먼저 ‘興驛船所’에 이르러 배와 짐물을 몸소 점검하고는 그 길로 녹도로 갔다.³³⁾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관할 수군진과 읍의 전비 상태를 점검하며, 전라좌수영을 출발하여 10여 일 동안 흥양지역의 수군진과 읍수군 그리고 여수 돌산도 방답진 등을 점검하였다.³⁴⁾ 그 과정에서 이순신은 ‘興驛船所’에 들러 전선과 무기류 그리고 수군들이 사용하는 짐물들을 점검하였다. 흥양전선소는 선창, 선소 또는 전선소 등으로 불리어지는 선소를 말하는 것으로, 흥양에 선소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들이 이 시기보다 상당히 앞선 시기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남치근으로 하여금 전선 7~8척을 거느리고... 바닷길과 여러 섬들을 지나면서 살피게 하는데 바다를 순찰할 적에 거쳐 가는 바 수영 및 전선을 보유한 각 ‘읍(관)’의 수령과 각 진포의 첨사·만호 등이 각기 전선을 거느리고 길을 가리켜 주면서 함께 순행토록... 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³⁵⁾

33) 『난중일기』 1592년 2월 22일.

34) 『난중일기』 1592년 1월 3일; 2월 22일; 25일; 26일.

35) 『명종실록』 권25, 명종 14년 5월 기묘.

주사대장 남치근이 아뢰기를 “각 읍(관)과 각 진포의 전선을 보유한 곳이 모두 유명무실합니다. 단지 형체만 갖추었을 뿐 평상시에 수리와 보수를 잘 하지 않고서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고 맙니다.³⁶⁾

위 사료는 을묘왜변(1555년, 명종 10년) 이후 방어시설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각 읍(관)에서 판옥선 등을 보유하였음을 보여준다. 각 읍에서 판옥선을 보유하였다면, 전함이 계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의 다름아닌 것으로 이 시기 각 읍 단위에 이미 선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³⁷⁾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승방략체제가 시행되었다고 생각되는 1555년(명종 10) 경에 전라좌수영 관할 각 읍 단위에 선소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순천도호부 선소의 설치시기를 살펴본다. 순천도호부 선소가 자리하였던 장생포는 고려 말부터 군선이 정박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지역이고, 조선초기에 돌산진과 부설 선소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이곳에 순천부 선소가 들어섰다면, 고려말 수군 정박처를 돌산진 선소가 이어받고, 돌산진 선소가 화양면 용주리로 이동한 후 그곳에 순천도호부 선소가 들어섰다고 판단된다. 즉 순천도호부 선소의 연원은 여말선초로 소급될 수 있다.

3.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위치와 입지 조건

다음으로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 선소의 위치와 지형의 특징을 고지도와 현장답사를 통해 비교·분석한다. 우선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를 비롯한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 선소의 위치와 입지를 살펴본다.³⁸⁾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는 자료에 의하면 전라좌수영(현 여수시 근자

36) 『명종실록』권25, 명종 14년 5월 무술.

37) 변동명, 앞의 논문, 2008, 248~254쪽.

38)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선소 및 읍선소의 위치는 뒤에 <그림 1>을 참조하기 바람.

동·중앙동 일원) 남쪽 성문 바로 앞쪽 일원이다.³⁹⁾ 이곳은 현재 여수시 중앙동 580번지 부근으로 생각되며, 이 주변은 현재에도 선박의 입출항이 많고 여객선터미널이 있을 정도의 양항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또한, 동쪽편에 낮은 산이 있어 외해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지형이다. 전라좌수영 일원 중에서도 가장 은폐가 잘되는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선소 위치로 보인다.

사도진 선소는 고지도에 의하면 남쪽 성문 좌측 일원이다. 현재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진 남문이 있었던 곳에서 좌측 편으로 진행하다 보면 마을 주차장이 나타나는데 그곳이 예전에 군선 등을 계류시켰던 굴강이었다고 한다. 증언과 고지도에 그려진 선소의 위치를 종합해 보면 사도진 선소는 현재 금사리 758-17번지 일원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외해에서 진입할 때 蛙島라는 섬이 있어 사도진 중에서도 가장 은폐가 잘된다.

방답진 선소는 19세 후반에 간행된 『순천방답진지도』(奎 10510)와 「호남연해형평도」 중 여수연해 지도에 나타난다. 방답진 서쪽 성벽 근처에 ‘船所’ 또는 ‘船倉’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 굴강이 그려져 있어 그곳이 선소였음을 보여준다. 이곳은 방답진성 서문 밖 서외리(현 여수시 돌산읍) 일대로 현재에도 선소와 관련된 굴강유적이 있다. 방답진 선소는 특이하게도 서문 일대에 위치하며, 외해에서 진입하려면 쓸통과 임진끝이라는 지명이 있는 야산을 우측으로 감아 돌아야 한다. 역시 외부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요해지이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방답진 남문 밖에 선소가 위치에 있었다고도 한다.

회령포진 선소는 『장흥부회령포진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⁰⁾ 회령진 남문 밖 우측에 선소가 표기되어 있고, 정박해 있는 군선이 그려져 있어 그곳이 선소임이 확실하다. 현재 이곳은 고지도상에 선소의 위치가 남문 앞 우측이라는 점과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현 장흥군 회진면사무소와 회진항 일원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포구로 외

39) 『여수근해도』(1700년 圖, 호암미술관 소장); 『湖左水營誌』(奎, 古 9920-3, 1847년).

40) 『장흥도호부지도』(奎10443).

해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현재에도 항구로 사용되는 등 양항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녹도진 선소의 위치는 『홍양현녹도진지도』 등에 잘 나타나 있다.⁴¹⁾ 녹도진(현 고흥군 도양면 비봉리 일원) 남문 밖 우측에 선창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그곳에 건물 1채와 석축으로 쌓은 굴강이 그려져 있어 이곳이 선소임을 알려준다. 선소의 현재 위치는 고지도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재 비봉리 2242번지 일원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비봉산 서남쪽 바로 아래로 외해에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요해지이다.

발포진 선소는 『홍양현발포진지도』를 통해 대략 파악할 수 있다.⁴²⁾ 지도에서 발포진(현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일원) 남문 밖 우측에 선소가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에 石墩이라 명기되어 있는 석축과 그 안에 군선이 정박되어 있어 이곳 일원이 선소임이 분명하다. 현재 위치는 현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입구에 석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고지도상과 이곳이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이 그곳이 예전에 군선의 정박처였다고 한 것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현 발포리 484번지 일원이 선소 터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 선소는 수덕산 우측의 남쪽 가장자리가 가로막고 있어 내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여도진 선소(현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는 고지도에 의하면 여도진 북문 앞 우측 편이다.⁴³⁾ 현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선소의 위치가 여도진의 북문 앞이었다는 점, 지도에서 선소 앞에 원주도가 있었다는 점, 마을 뒤쪽 서북에 바다로 불쭙 튀어나온 야즈막한 밭 인근이 예전에 굴강이었다는 주민의 증언 등을 고려해 보면, 현 여호리 150번지 일원이 선소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선소는 다른 선소와 달리 북문 앞에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선소 주변에는 원주도가 외호하고 있어 외해에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다.

고돌산진 선소는 고지도에 의하면 고돌산진 남문 앞쪽 우측이다. 선

41) 『홍양현녹도진지도』(奎10454).

42) 『홍양현발포진지도』(奎10455).

43) 『홍양현여도진지도』(奎10457).

소의 현 위치는 지도에서 위치, 현 마을 앞 주차장이 예전에 굴강이었다는 주민의 증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595번지 일원이 선소로 생각한다. 이곳은 외항에서 진입하다보면 마을 뒷산 동쪽 가장자리가 가로막고 있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전라좌수영 관할 읍 선소의 위치와 입지를 정리한다. 순천부 선소는 『여지도서』, 44) 『호좌수영지』, 45) 『신증승평지』 46) 등에 보인다. 장생포가 순천부 전선이 정박하는 곳이라거나, 순천부로부터 장성(생)포는 동쪽 60리이고, 순천부 선소가 전라좌수영 본영에서 수로로 20리, 육로로 15리라는 표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선소는 1972년 현 여수시 시전동 일원이라 알려졌으며, 임진왜란 직전 거북선(순천거북선) 건조 장소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1974년 12월 전라남도 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문헌조사와 몇 차례 발굴조사 등으로 47) 1995년 국가 사적 제392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여수선소로 불리는 이 선소의 입지를 살펴보면, 외해에서 여수시 돌산도와 화양반도 사이로 들어오는 남쪽 초입부에서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장생포 일원이다. 현재 장생포 일원은 도시화 사업으로 인한 매립공사로 많은 포구가 육지화되어 있지만, 매립 이전만 해도 현 선소 위치에서도 1km 이상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야 육지였다. 현 쌍봉초등학교 앞 근처까지 포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지도나 일제강점기 때 지적도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기왕의 선소는 현 선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옛 포구의 대부분이 선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선소 중심지는 현 여수선소 내 굴강으로 판단된다.

선소의 중심지 굴강 일원은 외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입하는 장생포 초입부 동쪽 언저리이다. 이곳은 외해에서는 물론이고 굴강 인근까지 근접해서도 감지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는 외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천혜의 군사요새지이다. 그리고 장생포는 선재를 구할 수 있는 국영 宜

44) 『여지도서』 전라도 순천부 지도 및 산천 장생포.

45) 『湖左水營誌』(奎, 古 9920-3, 1847년) 路程.

46) 『新增昇平志』 路程.

47) 社團法人麗川文化院, 『麗川市鄉土文化資料集』, 진남문화인쇄사, 1993.

松地가 존재했었으며 부근에 전라좌수영 본영이 위치해 있었다.⁴⁸⁾

장흥도호부 선소는 『장흥읍지』⁴⁹⁾에 따르면 부 치소 동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다.⁵⁰⁾ 1872년도에 제작된 『장흥부지도』에 海倉 건물에 부 치소에서 30리로 표기되어 있고, 바로 앞 우측으로 군기고와 굴강의 그림, 전선과 군선·사후선이 각각 1척씩 그려져 있어⁵¹⁾ 해창은 선소와 동일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⁵²⁾ 『장흥부지도』의 해창 주변을 보면 해창에서 북쪽으로 沙村마을이 있고, 마을 앞에는 裝載島, 동쪽 해변 즉 得糧灣에서 내륙쪽으로 향하는 좌측해변으로 水門浦, 揮里⁵³⁾ 그리고 栗浦가 나타난다. 이를 현재 지명과 비교하면 거의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선소는 현재 장흥군 안양면 해창 일대이며,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장흥도호부 선소는 장흥군과 고흥군 사이에 있는 득량만 중간의 득량도 앞 서쪽방향의 포구이다. 포구 입구에는 장재도가 가로막고 있어 좌우의 협수로를 통해서 포구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 장흥도호부 선소는 포구 안쪽에 있는 해창마을 일원이다. 이곳은 천혜의 군사요새지이며, 부근에 회령포수군진이 있었다.

보성군 선소는 자료에 의하면 2곳이었다. 1871년 찬술된 『보성군읍지』(奎 12175)⁵⁴⁾에 선소가 郡 동쪽 35리에, 1872년 그려진 『전라도보성군지도』(奎 10504)⁵⁵⁾에 읍으로부터 50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선소의 위치에 대한 기록이 차이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

48) 『세종실록』권121, 세종 30년 8월 경신.

49) 『장흥읍지』(奎12175).

50) 1872년도에 그려진 『장흥부지도』에 해창 건물에 그려져 있는 곳이 부의 치소로부터 30리라고 되어 있고 이곳 앞에는 바로 앞 우측으로 군기고와 굴강형식의 그림에 전선과 군선·사후선이 각각 1척씩 그려져 있어 이시기 해창은 곧 선소와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51) 『장흥부지도』(奎10439).

52) 현장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흥부 선소는 장흥군 관산읍 죽청리 산 26-1번지 앞 해변일대에도 있었다고 한다.

53) 고지도에서 휘리는 현 회천면 일원, 삽내라고도 함.

54) 『보성군읍지』(奎12175).

55) 『전라도보성군지도』(奎10504).

데 또 다른 『보성군읍지』(奎 10806)⁵⁶⁾를 살펴보면 “선소는 군 동쪽 35리에 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기록이 있어 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⁵⁷⁾ 이를 토대로 본다면 선소가 읍으로부터 동쪽 3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50리로 옮겨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라도보성군지도』에 나타난 선소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소는 득량만과 접해있는 오봉산 아래 해변 쪽에 표시되어 있다. 이 부근에서 선소를 찾는다면 현재도 지명을 선소로 사용하고 있는 선소마을 밖엔 없다. 이는 이 선소마을이 현재에도 배를 정박시켰을 법한 굴강의 흔적이 있고, 예전에 이 곳에 수군이 주둔했었고 배를 정박시키던 장소와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다는 마을주민의 증언 등에서 입증된다.⁵⁸⁾

선소는 득량만 입구에서 북쪽 내륙으로 진입하다 보면 동쪽에서 바다 쪽으로 이어진 오봉산 줄기 언저리를 좌측으로 감아 돌면 그 안쪽에 선소가 있다. 이곳 역시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낙안군 선소는 『낙안읍지』(1786년, 1871년)에 군 남 25리, 『전라도낙안군지도』(1871년)에 관에서 30리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1786년과 1871년도에 편찬된 『낙안읍지』에 나타난 선소 관련 내용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전자의 읍지 내용을 후자가 그대로 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읍 치소로부터 25리에 있었던 낙안군 선소가 1871년에 읍 남쪽 30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낙안읍지』와 『전라도낙안군지도』에 나타난 선소의 위치는 5리의 차이가 있다.

두 선소의 위치를 살펴보려 하는데, 읍치소에서 25리 떨어진 선소는 관련 기록과 전승이 없어 그 위치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읍 치소에서 30리 떨어진 선소만을 밝혀보는데, 이는 『전라도낙안군지도』를

56) 『보성군읍지』(奎10806).

57) 이 자료는 1871년 찬술하였다고 하는 『보성군읍지』(奎12175) 선소조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이 읍지에서 선소가 없다고 기록한 것은 1895년 갑오개혁 때 수군이 혁파되면서 선소가 폐지되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1871~1872년 사이에 선소가 읍 35리에서 군 50리로 이전하여 기왕에 선소가 폐지된 사실을 언급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58) 선소의 현 위치는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632번지 일대 선소마을이다.

토대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선소가 위치한 곳은 진석마을 이고, 이곳은 읍 치소에서 30리 떨어진 곳이다. 이를 통해 진석마을에 선소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곳은 현재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진석마을로 포구 입구이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예전에 ‘船所’ 또는 ‘船首’라고 불려졌고, 수군이 주둔했었으며, 배를 건조하였고, 무기창고 등이 있었다고 한다.⁵⁹⁾ 이를 종합해 보면 진석마을 선소는 1871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선소로 보인다.

이 선소는 보성군 벌교읍 남쪽에 위치한 포구 입구이다. 포구는 진입하기 직전 현 장도와 지주도가 동서로 각각 가로막고 있어 포구 안쪽은 확인이 쉽지 않다. 선소 주변에는 제석산 줄기가 있어 선소를 외호하고 있다. 선소의 위치가 이렇하기 때문에 외해에서는 관측이 거의 불가하여 좋은 군사적 입지조건을 가지며, 근처에 선재를 구할 수 있는 국영 의송지였던 장도가 있다.⁶⁰⁾

홍양현 선소는 『홍양지』(1759~1765년)와⁶¹⁾ 『신증홍양지』(1871년)에 현 남쪽 40리, 『홍양현지도』(1871년)⁶²⁾에 현 치소로부터 35리라 표기되어 있다. 읍지와 고지도를 비교해보면 5리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고지도에 홍양 선소에 도달하는 길은 두 갈래로 되어 있어 현 치소에서 곧장 선소를 가면 35리이나 인근 발포진으로 가는 길을 거쳐서 선소로 가면 40리 정도이다. 이는 발포진에서 선소촌 즉 선소까지 거리가 5리라고 명기되어 있는 『홍양현발포진지도』⁶³⁾에서 확인된다. 즉 읍지와 고지도에서 5리의 거리차이는 선소위치가 달라서가 아니라 기록자의 주관적 기록 때문이다. 그렇다면 홍양현 선소는 어디인가?

『홍양현지도』에서 홍양 선소는 서쪽의 유주산과 동쪽의 수덕산 사이 포구 초입부이다. 현재 이곳은 도화면 덕흥삼거리와 해안 방조제 부근 하도나루터 사이로 추정된다. 주민증언에 예전에 배를 건조 수리 하고

59) 진석마을은 현재 평범한 해변가 마을이지만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이곳에 상당한 크기의 상선들이 정박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60) 『세종실록』권121, 세종 30년 8월 경신.

61) 『홍양지』(상백 古 915, 14 H483, 1759~1765년).

62) 『전라좌도홍양현지도』(奎10472).

63) 『홍양현발포진지도』(奎10455).

계류시키는 굴강 형태가 있었는데 매립공사와 도로공사 등으로 없어졌으며, 굴강 뒤 육지면에는 무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건물도 2~3채 정도 있었다는 현 덕흥리 711번지 일원이 선소였다고 한다. 주변에 국영 소나무 배양지였던 유주산이 있으며, 발포수군진이 있다.⁶⁴⁾

광양현 선소는 『광양읍지』(奎 17435, 1759년) 창고조, 『광양읍지』(奎 12175, 1871년) 창고조, 『광양읍지』(奎 12181, 1895년) 창고조, 『광양읍지』(奎 10744, 1899년) 창고조, 김정호의 『대동지지』,⁶⁵⁾ 『광양현지도』(1871년) 등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선소창이 현 치소로부터 동쪽으로 50리에 있다고 하였다. 선소창은 선소에 있는 부속건물이기⁶⁶⁾ 때문에 선소의 위치를 알려준다. 『광양현지도』에 선소는 동쪽 편에는 茂積山이 있고 남쪽으로는 망덕산이 가로 막고 있는 포구 입구이다. 즉 섬진강 하구에서 포구 쪽으로 진행하다 무적산 남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선소이다. 선소라는 지명, 주변에 군장터·선소창터·선창 등의 지명, 고지도와 일치, 옛 선소 터라는 주민증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곳은 광양현 선소가 분명하다. 선소는 섬진강 쪽에서는 위치를 가늠하기 쉽지 않고, 인근에 국영 船材長養地處인 백운산이 있어⁶⁷⁾ 선재를 구하기가 매우 쉬운 곳이었다.

4.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수군진 선소 및 읍 선소의 운영과 시설

선소는 군선의 정박, 건조·수리 기능이 중요했기 때문에 각 선소에 배치되었던 군선과 승선인원, 자원조달, 선재조달, 잡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희소하여 정리가 쉽지 않다. 최

64) 『세종실록』권121, 세종 30년 8월 경신.

65) 『大東地志』光陽, 창고조에는 “船所倉東五十里”라고 되어 있다.

66) 『광양현지도』(奎10500).

67) 『숙종실록』권24 숙종 18년 2월 계사.

대한 유관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여 대략적이지만,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의 운영 형태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밝혀볼 수 있다. 이에 관찬사료나 지지류 등에서 선소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 선소 운영을 정리해 본다.

〈표 2〉 전라좌수영 본영선소 군선척수 및 승선인원

1분류	척수	선장	기패관	포도관	훈도	사부	사수	포수	화포장	사공	선지	능동군	사격군	타공	요수	정수	계	전거
전선	3																	『속대전』 1746
병선	5																	
귀선	1																	
사후선	11																	
계																		
1전선	1		2	2	1	15		24	10	8	1	144					207	『순천부읍지』 ⁶⁸⁾ 1787
2전선	1		2	2	1	15		24	10	8	1	120				183		
3전선	1	1	2	2	1	15		24	10	8	1	108				172		
4귀선	1	1	2	2	1	15		24	10	8	1	96				160		
병선																		
사후선																		
계																	722	
전선	4																	『만기요람』 1808
병선	5																	
사후선	11																	
계																		
1전선	1		2	2	1	15		24	10	8	1	144					207	『호좌수영지』 ⁶⁹⁾ 1815
2전선	1		2	2	1	15		24	10	8	1	120				183		
3전선	1	1	2	2	1	15		24	10	8	1	108				1782		
4귀선	1	1	2	2	1	10	24		10	8	1	90				150		
병선	5	5	5		5	50			5			155				230		
사후선	11											66				66		
계																	1,008	

68) 『순천부읍지』(奎 17434, 1787 撰) 軍額.

69) 『호좌수영지』(1815년 刊, 해군사관학교소장).

1분류	천수	선장	기패관	포도관	훈도	사부	사수	포수	화포장	사공	선직	남문군	사격군	타공	요수	정수	계	전거
前營 吳字1호	1		2	2	1	15		24	10	8	1	144					207	『호좌수영지』 ⁷⁰⁾ 1847
1병선	1	1	1		1	10		10	1	1		30					55	
2병선		1	1		1	10		10	1	1		30					55	
1사후선										1		5					6	
2사후선										1		5					6	
3사후선										1		5					6	
4사후선										1		5					6	
5사후선										1		5					6	
숙자1호	1		2	2	1	15		24	8	10	1	120					183	
병선	1	1	1		1	10		10	1	1		30					55	
1사후선	1									1		5					6	
2사후선	1									1		5					6	
숙자6호	1	1	2	2	1	15		24	10	8	1	108					172	
병선	1	1	1		1	10		10	1	1		30					55	
1사후선	1									1		5					6	
2사후선	1									1		5					6	
숙자2호 (거북선)	1	1	2	2	1	15		24	10	8	1	96					160	
병선		1	1		1	10		10	1	1		30					55	
1사후선										1		5					6	
2사후선										1		5					6	
계																	1,063	
1전선	1																207	
1병선	1																55	
2병선	1																55	
1사후선	1																6	
2사후선	1																6	
3사후선	1																6	
4사후선	1																6	
5사후선	1																6	
2전선	1																183	
병선	1																55	
사후선	2																12	
3전선	1																172	
해골선	1																55	
사후선	2																12	
4전선	1																155	
병선	1																55	
사후선	2																12	
계																	0	

70) 『호좌수영지』(1847년 판, 奎 古9920-3).

1분류	척수	선장	기패관	포도관	훈도	사부	사수	포수	화포장	사공	선직	능로군	사격군	타공	요수	정수	계	선거
전선	3																	
거북선	1																	
해골선	1	7	60	8	9		105	146	40		4	673		24	8	8	1,092	『증보문헌비고』 권120병고12 주사 조선 1908
방선	4																	
사후선	11																	
계																	1,092	

〈표 2-1〉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선소 군선척수 및 승선인원

1분류	척수	선장	기패관	포도관	훈도	사부	사수	포수	화포장	사공	선직	능로군	사격군	타공	요수	정수	계	선거	비고	
사도진	전선	2																『속대전』, 『만기요람』		
	병선	2																		
	사후선	4																		
계																				
사도진	전선	1															8	『신증홍양지』	舟師 230명	
	병선	2	1	3	2	2														
	사후선	2																		
계																238 ⁷¹⁾				
방답진	전선	2																『속대전』, 『만기요람』		
	병선	2																		
	사후선	4																		
계																				
방답진	1전선	1		2	2	1	15		24	10		1	108		2	2	2	169	『방답진책』 ⁷²⁾	
	2전선	1	1	2	2	1	15		24	15		1	108		2	2	2	175		
	1병선	2	2	2		2	20		22	2	2		60				112			
	1협선	2												12			12			
	2협선	2												12			12			
계																	480			
방답진	1전선	1	1	3	2	2	25		34	11				10 ⁷³⁾			88	『방답진지』 ⁷⁴⁾		
	2전선	1	2	3	2	2	25		34	11				10 ⁷⁵⁾			89			
계																	177			

71) 238명은 주사를 포함한 인원임.

72) 『湖南鎮誌』(奎 12188), 『防踏鎮鎮誌及事例并錄成冊』, 1872년 편찬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湖南邑誌』를 영인한 『읍 4(全羅道1), 韓國文學文獻研究所 編, 1983, 亞細亞文化史에 수록된 『防踏鎮鎮誌及事例』.

73) 舵工의 숫자는 선직을 포함한 것임.

74) 1872년 편찬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湖南邑誌』를 영인한 『읍 4(全羅道1), 韓國文學文獻研究所 編, 1983, 亞細亞文化史에 수록된 『防踏鎮鎮誌及事例』.

1분류	척수	선장	기패관	포도관	훈노	사부	사수	포수	화포장	사공	선직	기타(기타)	사격관	타공	요수	정수	계	전거	비고		
회령포진	전선	1																『속대전』, 『만기요람』			
	병선	1																			
	사후선	2																			
계																					
회령포진	열자전선	1		2		15	24	10				108	976)				168	『장흥읍지』, 『장흥부회령진지도』 ⁷⁷⁾			
	방선	1	1			10	10	1				42	1				65				
	1사후선	1										5	1				6				
	2사후선	1										5	1				6				
계																	368				
녹도진	전선	1																『속대전』, 『만기요람』			
	병선	1																			
	사후선	2																			
계																					
녹도진	전선	1																『신증홍양지』 ⁷⁸⁾	舟師 230명		
	병선	1	1	3	2	2															
	사후선	2																			
계																	8				
발포진	전선	1																『속대전』			
	병선	1																			
	사후선	2																			
계																					
발포진	귀선	1																『만기요람』			
	병선	1																			
	사후선	2																			
계																					
발포진	전선	1																『신증홍양지』 ⁸⁰⁾	舟師 330명		
	병선	1	1	6	6	6															
	사후선	2																			
계																	19				
여도진	전선	1																『속대전』, 『만기요람』			
	병선	1																			
	사후선	2																			
계																	349 ⁸¹⁾				

75) 舵工의 숫자는 선직을 포함한 것임.

76) 舵工의 숫자는 요수와 정수가 포함된 것임.

77) 『장흥읍지』(奎 12175, 1871년 撰) 회령포 ; 『장흥부회령진지도』(규 10443, 1871년 圖).

78) 『신증홍양지』(奎 10804, 1758년 撰) 船所.

79) 238명은 주사를 포함한 인원임.

80) 『신증홍양지』(奎 10804, 1758년 撰) 船所.

81) 350명은 주사를 포함한 인원임.

1분류	척수	선장	기패관	포도관	훈노	사부	사수	포수	화포장	사공	선직	기내어	사격관	타공	요수	정수	계	전거	비고		
여도진	전선	1	1	3	2	2											8	『신증 홍양지』 82)	舟師 238 명		
	병선	1																			
	사후선	2																			
계																246 ⁸³⁾					
고돌산진	전선	1																『속대 전』, 『만기 요람』			
	병선	1																			
	사후선	2																			
계																					
고돌산진	열자전선	1		2	2	1	15		24	10		108		10			172	『호남 읍지』 ⁸⁴⁾			
	장자병선	1	1	1		1	10		10	1		30		1		55					
	1사후선	1										6				6					
	2사후선	1										6				6					
	계																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는 『속대전』이 편찬되었던 1746년(영조 22) 전선 3척·병선 5척·귀선 1척·사후선 11척, 『순천부읍지』가 편찬되었던 1787년(정조 11) 경에 전선(판옥선) 3척에 거북선 1척, 1808년(순조 8) 경 전선 4척·병선 5척·사후선 11척, 1815년(순조 15) 경 전선 3척·거북선 1척·병선 5척·사후선 11척, 1847년(헌종 13) 경 전선 3척·거북선 1척·병선 5척·사후선 11척, 1872년(고종 9) 경 전선 4척·병선 4척·사후선 11척·해골선 1척, 1908년 경 전선 3척·거북선 1척·해골선 1척·방선 4척·사후선 11척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서 1787년 경 전라좌수영 본영에서 보유하고 있던 군선 중 병선과 사후선이 보이지 않는 것은 1746년과 1815년 경 군선 척수를 토대로 한다면 기록의 누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전라좌수영 본영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군선 척수는 전선(거북선 포함) 4척, 병선 5척, 사후선 11척 등 도합 20여 척 내외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847년 경부터 전선의 명칭이 前營吳字 등으로 변경된 것이나 1872년 경부터

82) 『신증홍양지』(奎 10804, 1758년 撰) 船所.

83) 246명은 주사를 포함한 인원임.

84) 『호남읍지』(奎 12175, 1872년 撰) 순천, 古突山鎭鎭誌及事例.

해골선 또는 방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선 수군진 운영은 물론이고 부설 선소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 선소들은 속대전이 편찬되었던 1746년(영조 22) 경부터 군제개편으로 수군진이 폐지될 때까지 전선·병선·사후선을 포함하여 많게는 8여 척, 적게는 4척의 군선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답진선소나 회령포진선소의 경우 다른 수군진 선소와는 달리 협선이나 방선을 보유·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포진 선소는 여타 수군진 선소에서는 없는 거북선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돌산진선소의 경우 여타 수군진선소에서 나타나지 않은 列字戰船과 張字兵船이라는 명칭의 군선을 보유·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당시 수군진과 부설 선소 운영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운영되었던 군선의 경우 처음 건조한 뒤에 3년과 6년째에 두 번 改槳을 하여 9년을 사용했다.⁸⁵⁾ 이를 위해 선소는 수많은 船材가 필요했다. 선재는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의송지나 선재처에서 조달했는데,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에는 의송지가 36여 곳,⁸⁶⁾ 선재처가 10여 곳이 넘게 있었다.⁸⁷⁾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의 선재는 누가 관리하였으며 어떻게 조달하였을까.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 선재는 전라좌수사 총괄하에 각 수군진의 만호·첨사와 각 고을의 수령이 관리하고, 그 아래 금송도감→금송감관→산직의 체계로 관리가 이루어졌다.⁸⁸⁾ 선재는 각 수군진 선소나 읍선소에서 필요할 경우 전라좌수사에게 별목허가를

85) 『續大典』兵典; 金在瑾, 『우리배의 歷史』, 서울大學校出版部, 1991, 116쪽. 이것은 1747년(영조 22)경 전라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86) 『萬機要覽』財用編 5 松政 各道封山.

87) 「湖南島嶼圖」중 興陽·順天地圖(1840년경 제작,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金井昊編 『全南의 옛 地圖』, 社團法人 郷土文化振興院, 1994, 118쪽; 122쪽.

88)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軍船 木材 관리와 조달」, 『海洋文化研究』 4, 2010, 136쪽.

요청하고, 전라좌수사는 상부기관에 별목 요청을 한 후 그 승인이 떨어지면 관문에 의거 별목을 시행하였다. 이 별목의 통솔자는 수군진의 경우 일반 군관, 전선 제작을 전담하였던 監造戰船軍兵出納軍官⁸⁹⁾, 읍선소의 경우 전선대장 등으로 보인다. 이들은 군선 제작기술자였던 耳匠 등을 대동하여 별목작업을 한 후 선재를 선소까지 운반하는 작업까지 책임졌다.⁹⁰⁾ 선재가 선소로 운반되면 이장 등에 의해 가공되어 군선으로 거듭났다.

수군진 선소의 관리는 수군진 최고지휘관의 책임 하에 우후나 교수 등이 현장에서 책임졌다. 이들의 책임 하에 상당한 인원이 수군진 선소에서 활동하였는데, 군선을 지휘하는 선장, 수군훈련을 담당한 기패관, 수군의 규율이나 위반사실을 적발·단속하였던 포도관, 교육을 담당하는 訓導 등과 射夫·射手·砲手·火炮匠·船直⁹¹⁾·能艦軍⁹²⁾·沙格軍⁹³⁾·舵工⁹⁴⁾·繞水⁹⁵⁾·椗水⁹⁶⁾·舞上⁹⁷⁾ 이장⁹⁸⁾ 등이다.

수군진 선소별로 활동하였던 인원을 일별해 보면 전라좌수영 본영선소는 『순천부읍지』가 편찬되었던 1787년 경에는 722명, 1815년 1,008명, 1847년 1,063명, 1871년 1,058명, 1908년 1092명으로 나타난다. 본영선소의 인원은 1815년 경에 이전보다 약 300여 명이 증가한 후 그 상

89) 1591년 임진왜란 직전 이순신은 나대용을 監造戰船軍兵出納軍官에 임명하였다(『선조실록』 권206 선조 39년 12월 24일 무오). 이 직책은 전선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등의 역할 한 것으로 보인다.

90) 송은일, 앞의 논문, 2010, 147쪽.

91) 선직은 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2월 28일 갑오).

92) 능로군은 노를 젓는 수군이다(『備邊司謄錄』 84책 영조 4년 7월 24일[음]).

93) 사격군은 노를 젓는 수군이다(세종대황기념사업회·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3, 2001, 13쪽).

94) 타공은 군선의 키를 조작하는 수군이라고 생각한다.

95) 요수는 돛을 조작하는 수군이라고 생각한다.

96) 정수는 선수에서 닻을 조작하는 수군이라고 생각한다.

97) 무상은 닻 물레를 조작하는 수군이라고 생각한다.

98) 이장은 군선을 견조하거나 수리하는 목수라고 생각한다(송은일, 앞의 논문[2010], 141~142쪽).

태가 군제개편으로 수군진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선소는 1758년부터 군제개편으로 수군진이 폐지될 때까지 사도진 선소 238여 명, 방답진선소 480여 명, 회령포진 선소 245여 명, 녹도진선소 238여 명, 발포진선소 349여 명, 여도진선소 246여 명, 고돌산진선소 239여 명의 인원이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령포·녹도·발포·여도진 선소는 만호진 선소였기 때문에 침절제사진 선소인 방답진 선소나 수군절도사영 선소인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사도진 선소의 경우, 침절제사진 선소임에도 인원이 만호진 선소와 유사하며, 고돌산진 선소는 권관진 선소임에도 만호진 선소와 그 인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사도진 선소의 인원이 적은 것은 사도진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곳은 성문이 오래되어 무너지거나 혹은 이미 사라질 정도의 상태였다고 한다.⁹⁹⁾ 사도진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마 그 같은 상황에서 사도진이 거진이면서도 만호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원이 배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고돌산진 선소의 경우 만호진 선소와 유사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수군진이 만호진과 위상이 유사하였음을 말한다. 이는 고돌산진이 여타 만호진과 동일하게 한척씩의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전투시 편제에서 여도진이나 회령포진과 동일하게 초관의 위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¹⁰⁰⁾

그런데 이상의 공식 인원 모두가 항상 각 수군진 선소에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감조전선군병출납군관, 선장, 기패관, 포도관, 훈도, 선직 등 필수요원을 제외하면 수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포수나 능로군 등의 일부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시 수군이 서류상에도 제대로 채워두지를 않아 유사시에 대비할 수 없음을

99) 1895년(고종 32) 무렵 편찬된 『蛇渡鎮誌及事例成冊』(『湖南鎮誌』[奎12188])에는 사도진성 및 그 성문은 지어진지 오래되어 무너지거나 사라진 상태였다고 한다.

100) 『湖左水營誌』(奎, 古 9920-3, 1847년) 司哨.

말하고, 봄·가을에 실시된 정기 수조에 인원이 모자라 인근 주민을 동원하는 일이 많아서 그 폐단이 지적되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¹⁰¹⁾

각 수군진 선소에는 상당수의 공공시설물이 있었다.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를 보면 남문 밖 좌측에는 船倉·舟汁庫·耳匠廳이, 우측에는 沙工廳·射夫廳 등이 있었다.¹⁰²⁾ 선창이나 주즙고는 수군 관련 武器類를 보관하며, 이장청은 군선건조와 군선 목수 및 선재 등을 관리하고, 사공청·사부청은 사공과 사부를 관리하였다. 건물들 주변에는 군선을 계류시키거나 수리할 수 있는 굴강이 있었다.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에서 특이점은 내례포장이다. 내례포장은 고지도에서 굴강과 남문 사이에 있다.¹⁰³⁾ 이곳에 장시가 언제 設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명호가 내례포라면 아마 전라좌수영이 들어서기 전 내례포진이 있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여튼 전라좌수영 선소에 장시가 설장된 점으로 이곳이 상업활동의 공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도진 선소에는 명호를 알 수 없는 건물 2채가 있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선소와 관련된 창고 시설 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건물 아래에는 군선을 정박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굴강이 존재하였다.¹⁰⁴⁾

방답진 선소에는 고지도에 선소라고 명기된 곳에 撫劍亭·汁物庫·水軍器 3채의 건물이 그려져 있다.¹⁰⁵⁾ 무검정은 수군들이 무기를 손질·보관하거나 때로는 군사훈련 등을 관장하던 곳으로, 즙물고는 군량미를 비롯한 각종 짐물 등을 저장하던 창고, 수군기는 수군에 필요한 군기·갑옷 등을 저장했던 장소로 판단된다.

101) 『비변사등록』 31冊 속중 1년 을묘 2월 4일 三南巡撫使齋去應行節目.

102) 『湖左水營誌』(1815년 刊, 해군사관학교소장); 『湖左水營誌』(奎, 古 9920-3, 1847년)

103) 『순천부지도』(奎10511). 굴강의 현재 위치는 여수시 중앙동 로터리에서 전라좌수영성 내에 있는 망해루 사이 일대로 비정된다.

104) 『홍양사도진지도』(奎10441).

105) 『순천방답진지도』(奎10510).

회령포진 선소는 『장흥부회령지지도』를 보면¹⁰⁶⁾ 선소에 건물 1채가 그려져 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선소와 관련된 업무를 보거나 짐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생각한다. 건물 아래쪽에 石墩이라 표기되어 군선이 정박되어 있다. 이 석돈은 정박한 군선을 외부로부터 감추려는 목적으로 돌을 바다에 던져 수면 높이와 같게 만든 구조물로서¹⁰⁷⁾ 굴강과 유사한 것이다.

녹도진 선소는 『홍양현녹도진지도』를 보면¹⁰⁸⁾ 선창에 건물 1채가 그려져 있는데,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인다. 건물 아래쪽에 석축으로 쌓아진 굴강과 정박된 군선이 있다. 발포진 선소는 『홍양현발포진지도』를 보면¹⁰⁹⁾ 선소에 건물 1채가 그려져 있다. 명호가 없어 사용 용도를 알 수 없으나 선소업무를 보거나 무구류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보인다. 건물 앞 우측에 굴강과 유사한 石墩이 있다. 여도진 선소는 『홍양현여도진지도』를 보면¹¹⁰⁾ 선소에 건물 1채가 그려져 있어 창고로 보이며, 건물 아래쪽에 군선이 정박되어 있는데 굴강이다.

고돌산진 선소는 『순천고돌산진지도』를 보면¹¹¹⁾ 船倉汁物庫 1채가 그려져 있어 물건을 보관하거나 업무를 보던 장소로 보인다. 건물 우측 반대편에 군선이 정박하는 굴강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건물의 위치인데 여타 선소의 경우 대부분 굴강주변에 건물이 있는데 반해 이곳의 건물은 굴강과 상당히 떨어진 반대편에 그려져 있다. 지형적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선소의 운영과 시설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은 전라좌수영 관할 읍 선소에서 대해서 알아본다.

106) 『장흥부회령진지도』(奎10443).

107) 『중종실록』권104, 중종 39년 9월 임술.

108) 『홍양현녹도진지도』(奎10454).

109) 『홍양현발포진지도』(奎10455).

110) 『홍양현여도진지도』(奎10457).

111) 『홍양현발포진지도』(奎10493).

〈표 3〉 전라좌수영 관할 읍선소 군선척수 및 승선인원

분류	척수	전선대장	선장	기패관	포노관	해노	사부	화포장	화포수	타공	사공	무상	요수	정수	방포에	견	선직	계	전거	비고	
순천부	전선	1																	『속대전』		
	병선	1																			
	사후선	2																			
계																					
순천부	전선	1																	『만기요람』		
	방선	1																			
	사후선	2																			
계																					
순천부	전선	1																	『순천부읍지』 ¹¹²⁾		
	병선	1	1	1	1	2		30	11									47			
	사후선	2													146						
계																		192			
장흥부	전 선	1																	『속대전』, 『만기요람』		
	병 선	1																			
	사후선	2																			
계																					
장흥부	전 선	1	1		2	2	1	20	10	20	2		1	1	3	108		1	37	『장흥부읍지』 ¹¹³⁾	
	방 선	1		1	1		1	10	1	10	1					30		14			
	1사후선	1									1					5		6			
	2사후선	1									1					5		6			
	계																	63			
보성군	전 선	1																	『속대전』, 『만기요람』		
	병 선	1																			
	사후선	2																			
계																					
보성군	전 선	1	1	1	3	2	2	30	11	30	8						130	1	51	『보성군읍지』 ¹¹⁴⁾	
	병 선	1															12	12			
	사후선	2																			
계																		63			
낙안군	전선	1																	『속대전』, 『만기요람』		
	병선	1																			
	사후선	2																			
계																					
낙안군	전선	1																	『낙안군지도』 ¹¹⁵⁾		
	병선	1																			
	사후선	3																			
계																					

112) 『순천부읍지』(奎17434) 軍額.

113) 『장흥부읍지』(奎10804) 水軍將卒都教.

114) 『보성군읍지』(奎12175) 關防.

분류	척수	전선대장	선장	기패관	포도관	후부	사부	화포장	화포수	타공	사공	무상	오수	정수	기내에	격년	선직	계	전거	비고		
광양현		1																	『속대전』, 『만기요람』			
		1																				
		2																				
계																						
광양현	전선	1																	『광양현읍지』 ¹¹⁶⁾			
	방선	1	1	1	3	2	2	30	10	34					138			221				
	사후선	2														12		12				
계																		0				
광양현	전선	1																	『광양군읍지』 ¹¹⁷⁾			
	방선	1	1	1	3		2	30	10	34					138		1	81				
	사후선	2														12		12				
계																		0				
흥양현	전선	1																	『속대전』, 『만기요람』			
	병선	1																				
	사후선	2																				
계																						
흥양현	전선	1																	『신증흥양지』 ¹¹⁸⁾			
	병선	1	1	1	3	2	2	30	11	34	12				138	10		84				
	사후선	1																				
계																		244				
흥양현	전선	1																	『흥양현사례중시 직장가성책』 ¹¹⁹⁾	타공 10명은 선직포함		
	방선	1																				
	사후선	2																12				
계																		242				

위 표와 같이 읍 선소에는 군선이 많게는 5척, 적게는 3척 정도가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읍 선소에 배치되었던 군선 역시 수군진 선

115) 『낙안군지도』(奎10499). 김정호가 편찬한 『호남의 옛 지도』의 호남도서 중 낙안 지도에서는 4척의 군선이 그려져 있는데(김정호 편, 『호남의 옛 지도』, 119쪽) 이를 보면 기왕에 낙안군선소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116) 『광양현읍지』(奎17435) 軍額.

117) 『광양군읍지』(奎12181) 軍額.

118) 『신증흥양지』(奎10804) 船所.

119) 『興陽縣事例從時直定價成冊』(奎12181, 1895년 撰).

소의 군선과 같이 新造와 개삭·보수 등이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양의 선재들이 필요했다. 선재의 관리 및 조달 등에 대해서는 앞의 수군진 선소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읍 선소를 관리하는 현장책임자는 戰船代將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 표와 같이 선소 관련 직책 가운데 전선대장이 맨 앞에 나타나며, 고을 선소에 보관 중이던 비상시 양곡을 대장이 마음대로 나눠줘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¹²⁰⁾ 또한,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순천도호부에 해역을 수색하도록 명하자 이를 어긴 순천부의 代將, 色吏, 都訓導 등을 추궁한 사례,¹²¹⁾ 보성군수가 약속기한을 어기자 이순신이 대장을 문죄한 사례¹²²⁾ 등은 전선대장이 선소의 현장책임자임을 입증한다. 전선대장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서도 舟楫에 익숙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으며, 선소에서 출입하고 보관하는 군수물자 등 현장에서 운영하는 제반 임무를 맡았다.¹²³⁾

각 읍 선소의 현장책임자인 전선대장 휘하에 防船將, 旗牌官·捕盜官·훈도·사부·화포장·포수·타공·사공·무상·요수·정수·능로군·이장 등이 있었다. 각 읍 선소별로 활동하였던 인원을 일별해 보면, 순천부 선소 192명, 장흥부 선소 239명, 보성군 선소 231명, 광양현 선소 233명, 흥양현 선소 244명 등이다. 또한, 각 읍 선소에는 吏가 근무하였다. 임진왜란 직전 자료에 순천대장·도훈도와 함께 처벌 받았던 색리,¹²⁴⁾ 흥양현에 보이는 船所色,¹²⁵⁾ 광양현의 舟師色·兵船色¹²⁶⁾ 같은 존재이다. 사천현 선소에 두어졌다는 軍器監官,¹²⁷⁾ 광양현

120) 『비변사등록』 49책, 숙종 21년 6월 24일. 沿海列邑大同儲置米.

121) 『난중일기』 1592년 3월 20일(경진).

122) 『난중일기』 1592년 2월 5일(경인).

123) 『비변사등록』 31冊, 숙종 1년 2월 4일. 三南巡撫使齋去應行節目.

124) 『난중일기』 1592년 3월 20일(경진).

125) 『興陽縣事例從時直定價成冊』(규12181, 1895년 撰) 船所色.

126) 『光陽縣各所事例冊』(1850년) 舟師色·兵船色 441~443쪽.

127) 金鉉丘, 「조선후기 造船業과 造船術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81, 1998. 241~243쪽.

선소에 있었다는 군기감관과 船倉監官¹²⁸⁾ 등도 각 읍 선소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순천부 선소의 경우 16명씩 번갈아가면서 근무하였다는 船直,¹²⁹⁾ 광양현 선소에 30명이나 배정되었다는 汲水船直¹³⁰⁾ 등도 각 읍 선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공식 인원은 선소의 상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선대장이나 군기감관 등 필수 요원을 제외하면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포수나 능로군과 같은 군졸들은 보통 문서상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들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훈련이나 유사시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되며, 水操時 수군이 동원되지 않아 주민들을 동원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그나마도 제대로 동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¹⁾

각 읍선소의 상근자는 위 표와 같이 전함의 승선인원 중 간부급 요원인 전선대장(1인)·방선장(1)·기패관(3인)·포도관(2인)·훈도(2인) 등과 함께 군기감관(1인)·선창감관(1인)·선소색(1인)·주사색(1인)·병선색(1인) 등을 합한 대략 14여 명과 순천부 선소에서 16명이 번갈아 근무하였다는 선직 전체, 광양현 선소에 30여 명이 배정되었다는 급수 선직 등을 더하면 각 읍 선소는 20~60여 명까지 상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읍 선소는 각 읍 관할이었다. 운영은 원칙적으로 각 읍 수령의 권한이자 임무였다. 선소의 현장책임자인 전선대장을 선발하는 일부터 행정실무직인 吏 등 그리고 현장에서 선소를 관리 운영하는 핵심요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¹³²⁾ 선소의 수군(능로군·사수·포수)을 충원하고, 유사시에 이들을 동원하거나 훈련하는 일도 각 읍 수령의 몫이었

128) 『光陽縣各所事例冊』兵船色 443쪽.

129) 『新增昇平誌』上 船隻 戰船 夾註.

130) 『光陽縣各所事例冊』兵船色 449.

131) 『備邊司謄錄』31冊, 숙종 1년 2월 4일. 三南巡撫使齋去應行節目.

132) 『光陽縣各所事例冊』兵船色 443쪽. 광양현 사례이지만 그 외 전라좌수영 관할 읍 선소도 동일하였다고 판단된다.

다.¹³³⁾ 선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나 각종 물자도 각 읍 수령의 책임 아래 마련되었다. 전함 건조와 보수·개삭, 각종 군사장비, 군량미나 각종 부식의 보급과 비축, 각종 祭儀 집행과 비용, 선소의 준설 등 선소에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 읍에서 부담했었다.¹³⁴⁾ 이 중 군선 건조를 위한 재원은 읍 재정에서 강구되었지만 나머지는 읍 주민들의 부담이었으며,¹³⁵⁾ 주민들의 불만은 높았다. 鎭村과 船村이 때로는 합하거나 분리해서 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은 그 같은 사정을 대변한다.¹³⁶⁾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각 읍 선소의 업무와 운영은 각 읍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군사관련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군사부분은 각 읍의 수령보다 전라좌수영의 전라좌수사에게 권한이 있었다. 예를 들면 현장책임자인 전선대장의 근무평점, 선소에 소재한 수군기의 검열, 수군의 지휘 훈련 등이 그것이다.¹³⁷⁾ 요컨대 각 읍 선소의 평상시 운영은 읍 수령이 주도하였지만 군사훈련이나 유사시에는 전라좌수사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다.¹³⁸⁾

이와 같은 전라좌수영 관할 읍 선소에는 상당수의 공공시설물이 있었다. 순천부 선소에는 군선을 계류시키거나 수리할 수 있는 구조물인 굴강이 있었고, 풀뭇간도 존재했었다. 대체로 공공건물이 1~4채 있었

133) 『光陽縣各所事例冊』 兵船色 441~442쪽.

134) 『光陽縣各所事例冊』 舟師色·兵船色.

135) 『光陽縣各房都重記』(奎, 古 4259-71) 工房 및 本倉條.

136) 『船鎭兩村分洞節目』(奎, 古 4236-40) 丙子 10월 船村.

137)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흥양선소를 방문하여 배와 짐물을 점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난중일기』 1592년 2월 22일). 이와 관련하여 순천부선소의 것으로 생각되는 『船所水軍器反閱冊』에는 선소에서 관리하던 무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당 군기감관의 수결과 마지막에 수사의 수결이 있어(趙成都 외 『李忠武公遺蹟地 船所 文獻考證報告書』, 15쪽) 당시 각 읍선소의 군사적인 권한은 전라좌수사가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船所水軍器反閱冊』에 대해서는 변동명, 「여천선소유적[순천선소]의 조선후기 고문서 ‘船所水軍器反閱冊」 『해양문화연구』 3, 2009를 참조하기 바람.

138) 변동명, 앞의 논문, 2008, 263~271쪽 참조.

다.¹³⁹⁾ 건물은 水軍器(각종 무구류 보관)·船所倉(군량을 비롯하여 각종 什物 보관)·募軍倉(모군을 위해 마련된 건물) 등이며,¹⁴⁰⁾ 그 외 이름없는 건물은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소로 짐작된다. 순천부 선소에는 공공시설물 외에 석보장이란 장시가 있다. 장시는 『순천부읍지』(1792~1800년)를 통해 확인되므로 1792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순천부 선소에 장시가 설치된 점은 상업활동을 의미한다. 장흥부 선소의 경우, 『장흥부지도』에 군기고 건물 1채가 있다. 선소가 해창과 동일 장소였기 때문에 무구류를 보관하였던 군기고 주변에 해창 관련 건물 4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¹⁾ 군기고 아래로는 선소의 상징 구조물인 굴강이 있다.

보성군 선소는 『보성군지도』¹⁴²⁾에 건물 3채가 있는데, 수군기·선소창·모군창 등으로 판단되며, 정박한 선박을 통해 굴강을 짐작할 수 있다. 낙안군 선소는 『낙안군지도』¹⁴³⁾에 선소창·화약고·수군기고 등 건물 3채가 있다. 건물 동쪽에 굴강으로 짐작되는 공간이 있고, 장시가 설치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곡물을 선적하는 잡부, 출항을 감독하는 인원 등의 왕래가 잦았던 상당히 변화한 항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양현 선소는 『홍양현지도』¹⁴⁴⁾에 건물 3채와 정박된 군선이 있다. 광양현 선소는 『광양현지도』¹⁴⁵⁾에 건물이 2~3채 그려져 있다. 건물 2채가 그려져 있는 것은 선소창과 선소진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3채가 그려져 있는 것은 명호가 없다. 후자는 순천부 선소와 같이 수군기·선소창·

139) 순천부선소에 1채의 건물이 그려져 있는 것과(『여지도』[18세기 중반 圖] ; 『지승』[18세기 후반 圖]), 3~4채의 건물이 그려져 있는 고지도가 있다(『순천부지도』[규10511] ; 金井旻 編, 『전남의 옛地圖』, 122쪽).

140) 『순천부지도』(奎10511); 『光陽縣各所事例冊』兵船色. 449쪽. 광양현은 선창모군 30명, 군기모군 60명이었다.

141) 『장흥부지도』(奎10439).

142) 『보성군지도』(奎10504).

143) 『낙안군지도』(奎10499).

144) 『홍양현지도』(奎10472).

145) 『광양현지도』(奎10500).

모군창으로 판단된다. 광양현 선소의 공공건물 명호에서 특징은 船所 鎮인데, 이 명호는 다른 선소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¹⁴⁶⁾ 한편 광양현 선소에는 이러한 건물 외에 굴강이 있었다. 선소창 동쪽에 군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를 비롯하여 위치와 입지조건 및 운영과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문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할까 한다.

전라좌수영관할 수군진 선소는 대부분 각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시기나 그 이전 즈음에 설치되었으며 그 시기는 태조대에서 중종대에 걸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읍선소의 설치와 연원은 조선전기 군사방어체제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1457년(세조 3) 때부터 국방체제의 근간이 되어 온 진관체제가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을 전후한 시기에 제승방략이란 새로운 제도로 바뀐에 따라 해양방어체제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기왕의 진관체제하에서 수군은 행정구역과 관련시키지 않고 연해에 설치된 수군진만을 묶어 진관조직으로 편제하였다. 그런데 제승방략체제하에서는 수군진만이 아닌 연해지역 읍은 물론이고 主鎭의 인근 읍까지도 수군을 창설하여 수군절도사 관할 하에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읍에 읍수군이 창설되었고 읍수군이 주둔할 수 있으면서도 군선을 건조 계류시킬 수 있는 장소로 선소가 들어섰던 것이다.

146) 이 船所鎭이라는 명호는 선소창과 같이 건물이 명호로 표시한 것 같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건물의 명호인지 아니면 광양현 선소를 선소진으로 명기한 것인지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수군진 선소의 위치는 대부분이 수군진의 남쪽 성문 바로 앞에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방답진 선소와 여도진 선소의 경우 각각 서쪽 성문 밖과 북쪽 성문 밖에 위치에 있어서 독특했다. 읍선소의 위치를 보면, 순천부선소 현 여수시 신기동 일원, 장흥부선소 현 장흥군 안량면 해창리 일원, 보성군선소 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선소마을 일원, 낙안군선소 현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진석마을, 홍양현선소 현 고흥군 도화면 덕흥리 일원, 광양현선소 현 광양면 진월면 진월리 일원 등에 위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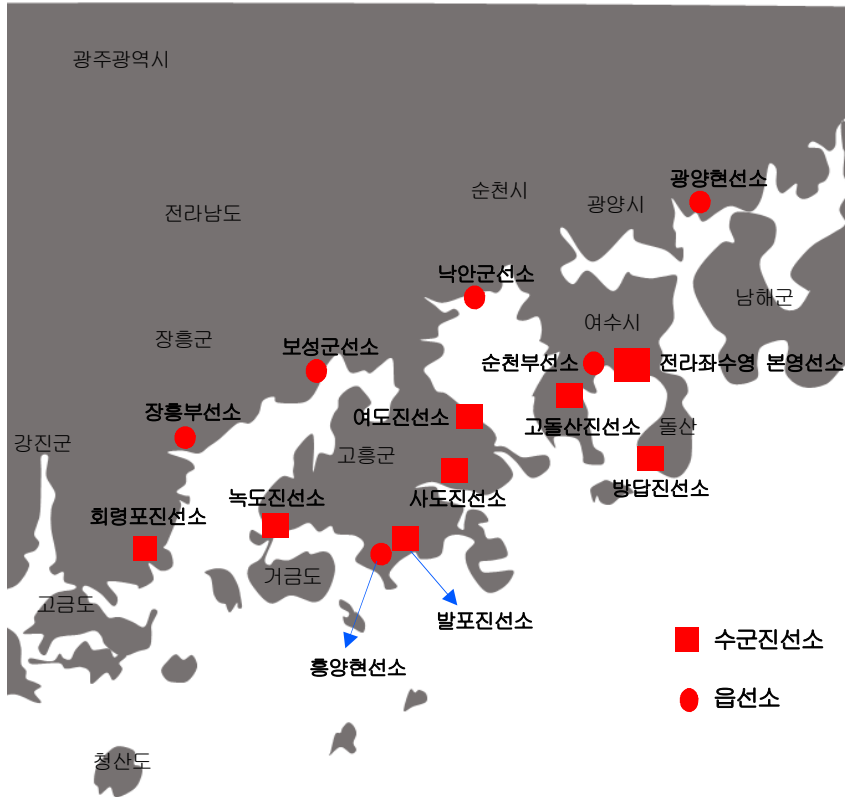
각 선소의 입지조건을 종합해보면 수군진 선소의 경우 수군진 일원에서도 가장 은폐가 잘되면서도 양향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 선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각 읍선소는 우선 포구 입구에 위치에 있어 내륙이나 외해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 주변 산 언저리나 섬 등이 가로막고 있어 밖으로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다음으로 읍 선소가 위치에 있는 곳의 지근거리에는 대부분 수군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것은 수군진과 각 읍 선소가 유사시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셋째, 각 선소가 위치한 곳이나 주변 가까운 곳에는 국가에서 소나무를 배양하는 선재처가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는 요해지이면서도 접근성이 양호하며 나아가 선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두루 갖춘 곳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소의 운영을 보면 수군진선소의 경우 수군진 최고지휘관의 책임하에 그 아래 직책인 우후나 교수 또는 감조전선군병출납군관 등이 현장책임을 맡았다. 이들의 책임하에 군선을 지휘하는 선장을 비롯하여 수군들의 훈련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되는 기패관, 수군들의 규율이나 위반사실을 적발·단속하였던 포도관, 교육을 담당하는 훈도 그리고 사부·사수·포수·화포장·선직·능노군·사격군·타공·요수·정수·무상 등 다양한 직책의 인원이 활동하였다. 읍선소의 경우 전선대

장을 비롯하여 방선장·기패관·포도관·훈도·군기감관·선창감관·사부·화포장·포수·타공·사공·무상·요수·정수·능로군 등이 포진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소에서 활동했었던 인원은 모두 상근자는 아니었다. 우후나 교수 또는 감조전선군병출납군관, 대장을 비롯하여 방선장·기패관·포도관·훈도 등 필수 요원들만이 상근자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인원이 활동하였던 수군진 선소는 수군진 관할이었다. 따라서 수군진 선소의 업무와 운영은 모두 각 수군진에서 담당하였고 그 최고 책임자는 수군진의 지휘관이었다. 반면 읍선소는 각 읍 관할이었다.



때문에 그 운영 또한 원칙적으로 읍 수령의 권한이자 임무였다. 그런데 읍수군에서 군사와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서 예외였다. 이 군사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의 수령보다는 전라좌수영의 전라좌수사 권한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운영되었던 각 수군진선소와 읍선소에는 船倉·舟汁庫·水軍器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이 상당수 존재했었다.

선소 연구에 대한 향후 과제는 우선 선소에 대한 문제를 정치·사회·군사적 변화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선소와 관련된 연구는 인접국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향후 선소연구는 그러한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고고학이나 문화콘텐츠학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그것의 활용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소관련 유적지에 대한 조사 및 보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현재 선소 유적은 개발 등으로 인해 그 흔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선소 유적지 조사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 결과는 지역별·시기별·水營별 등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2017. 10. 7, 심사수정일: 2017. 11. 17, 게재확정일: 2017. 11. 21.]

주제어: 전라좌수영, 선소, 조선시대, 군선, 임진왜란, 진관체제, 제승방략

〈참 고 문 헌〉

문헌자료

『광양현읍지』, 『광양현지도』, 『난중일기』, 『대동지지』, 『만기요람』, 『명종실록』, 『보성군읍지』, 『비변사등록』, 『선조실록』, 『성종실록』, 『세종실록』, 『숙종실록』, 『순천방답진지도』, 『순천부읍지』,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증승평지』, 『신증홍양지』, 『여지도서』, 『이충무공전서』, 『일성록』, 『장흥부지도』, 『장흥읍지』, 『장흥부회령진지도』, 『전라도보성군지도』, 『전라좌도홍양현지도』, 『정조실록』, 『태조실록』, 『태종실록』, 『호남읍지』, 『호남진지』, 『호좌수영지』, 『홍양지』, 『홍양현녹도진지도』, 『홍양현발포진지도』, 『홍양현사도진지도』, 『홍양현여도진지도』,

저 서

- 姜萬吉, 『李朝造船史』, 『韓國文化史大系』Ⅲ,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68
- 金在瑾, 『朝鮮王朝軍船研究』, 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6
- 金在瑾, 『韓國船舶史研究』,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4
- 金在瑾, 『우리 배의 歷史』,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91
- 金在瑾, 『續韓國船舶史研究』,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94
- 社團法人麗川文化院, 『麗川市鄉土文化資料集』, 여수: 진남문화인쇄사, 1993

논 문

金鉉丘, “조선후기 造船業과 造船術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81 (1998):239

邊東明, “朝鮮時代 突山島 防踏鎭의 설치와 그 구조”, 『韓國史學報』 27(2007):18-19

<http://uci.or.kr/G704-000690.2007..27.009>

邊東明, “조선시대의 突山鎭과 古突山鎭”, 『歷史學報』198(2008): 6-9

<http://uci.kci.go.kr/G704-000356.2008..198.004>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軍船 木材 관리와 조달” 『海洋文化研究』 4(2010):136

송은일, “조선전기 고흥지역 水軍鎭의 설치와 水軍의 동향”, 『歷史學研』 65(2016):47-48

<http://uci.kci.go.kr/G704-001257.2016..64.001>

許善道, “制勝方略 研究(下)”, 『震檀學報』 37(1974):16

<Abstract>

A Study on 'Seonso', which means the place for building warships, within the Jurisdiction of JeollaJwasuyeong in the Joseon Era

Song, Eun-Il

The seonso in naval post within the jurisdiction of JeollaJwasuyeong were mostly established when or before each navel post was set up. That is, they were mostly established between the reign of King Taejo and King Jungjong. The installation and origin of Eup Seonso were deeply connected to the changing military defense system of Joseon during the former half of its history. The Jingwan system, which had been the basis of national defense system since 1457년(third year of King Sejo's rule), was replaced with the new system of Jeseungbangryak around Eulmyowaebyeon(tenth year of King Myeongjong's rule), which brought considerable changes to the maritime defense system. The naval forces grouped together only the naval posts along the coast and organized them into Jingwan under the old Jingwan system, connecting them to no administrative districts. Under the system of Jeseungbangryak, however, they built the naval forces in the Eups along the coast and even near Jujin as well as the naval posts and put them under the jurisdiction of naval forces Jeoldosa. As a result, Eupsugun was created in each Eup, and Seonso were established at places where the Eupsugun could be stationed and warships could be built and moored.

Most of naval post Seonso were located right in front of the south gates of naval posts with two exceptions: Bangdapjin and Yeodojin Seonso lied outside the south and north gates, respectively, thus holding a unique position. Eup Seonsos were scattered around the region with Suncheonbu Seonso in Shingi-dong of current Yeosu City, Jangheungbu Seonso in Haechang-ri, Anryang-myeon of current Jangheung-kun, Boseonggun

Seonso in Seonso Village, Obong-ri, Deukryang-myeon of current Boseong-kun, Nakamgun Seonso in Jinseok Village, Jangyang-ri, Beolgyo-eup of current Boseong-kun, Heungyanghyeon Seonso in Deokheung-ri, Dohwa-myeon of current Goheung-kun, and Gwangjanghyeon Seonso in Jinwol-ri, Jinwol-myeon of current Gwangyang-kun,

Each Seonso was located in a point of strategic importance not exposed to the distant sea or outside.

As for the operation of Seonso, the supreme commander of naval post was in charge of naval post Seonso with his subordinates including Uhu, Gyosu, and Gamjojeonseonchulnapgungwan taking the field responsibilities. Under their supervision, a good number of people were active at the Seonsos. Eup Seonsos were taken care of by the captain that was followed by Bangseonjang, Gipaegwan, Podogwan, Hundo, Gungigamgwan, Seonchanggamgwan, Sabu, Hwapojang, Posu, Tagong, Sagong, Musang, Yosu, Jeongsu, and Neungrogun.

Not all of them were regular employees since only the essential members including Bangseonjang, Gipaegwan, Podogwan, and Hundo as well as the captain were regular employees.

Eup Seonso where those members were active were under the jurisdiction of concerned Eups, which means that their operation was in principle the right and duty of Eup heads. Each Eup took care of a lot of work and covered all the aspects of operation with the exception of military affairs, which were under the authority of Jeolla Jwasusa of Jeolla Jwasuyeong rather than the Eup heads.

There were many public facilities including Seonchang, Jujeupgo, and Sugungi at each of those naval post Seonsos and Eup Seonso that were operated in those ways.

Keywords: JeollaJwasuyeong, Seonso, Joseon dynasty, warship,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Jingwan system(Kind of homeland defending system), Jeseungbangyrak(Kind of mobilization system)